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첫단계

김 광 종 원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시대

가 변천함에 따라 인간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위생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자타가 공인한 사실일 것입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릿고개 시절은 없어졌고 많은 기업들은 수출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 생각하여 노사가 열심히 일한 결과 지금은 삶의 질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부산물인 환경오염문제나 산업현장에서의 유해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직업병문제 해결은 과거보다는 진일보 향상되었다고 하나 아직까지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말 직업병 문제의 대명사로 불리어졌던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노출로 인한 집단 중독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작업환경측정은 지역 책임제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 필자가 소속된 대학에서 이 회사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회사의 작업공정에 대한 과거 측정결과 자료와 특수검진 결과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작업부서에 있어서 이황화탄소 농도 측정이 누락되어 있음은 물론 이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특수검진 실시 근로자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전 정보를 확인한 후 각 작업부서 중 가장 유해성이 높은 이황화탄소의 노출평가에 역점을 두고 측정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심각한 정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 공장장 등 임원진들에게 측정결과를 설명해드리고 조속히 회사내 노사 작업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미온적인 태도였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그 존재가 사라진지 오래 되었으며, 우리에게 시사해준 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첫 단계이자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일은 산업위생 관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장내 유해요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하며 측정 평가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이공학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 수준에서 일보 진전시켜 과거의 고전적 직업병 예방은 물론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등의 예방관리에 관한 근원적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건강보호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보건위생분야에 대한 산업현장의 문제해결 중심의 연구 기반 확충이 있어야 하며 산업보건위생분야 전문인력의 지원과 육성, 과감한 연구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향후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는 국가의 사회 안전망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인적 관리 면에서나 경제적인 관리 면에서 기업 경영에 합리화를 추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